

한·미 FTA '일등공신'... 효성 50년, 글로벌 수출기업 키워

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누구인가

중국·베트남·인도 등 현지 공장 만들어
1990년대 후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2010년 이후 스판텍스섬유 세계1위 위상

“경제가 어려울 수록 기업은 국민의 믿음직한 버팀목이 되어 합니다.”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2009년 한국 경제인협회 신년사를 통해 전했던 말이다. 조 명예회장은 50년 넘게 효성을 일구며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키운 주역이다. 지난 29일 별세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그의 업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 기술 중시 해안으로 효성 이끌어

조 명예회장은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응용화학을 전공하고 미국 일리노이 공과대학원에서 화학 석사 학위까지 받았다. 1966년 효성의 모태인 동양나이론 울산공장 건설에 참여하며 본격적인 경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동양나이론 울산공장 건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조 명예회장은 1990년대 후반부터 스판텍스, 타이어코드, 전력기기 등 주력사업을 중심으로 중국, 베트남, 인도, 등 현지에 생산 공장을 만들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효성은 2000년 이후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 2010년 이후 스판텍스 섬유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며 세계1위 위상을 유지해왔다.

◆ 재계에도 중추적 역할 맡아...국제관계에 '능통'

조 명예회장은 한국의 재계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다. 특히 한·미 FTA 필요성을 최초로 제기하며, 민간 외교부문에서 한·미 FTA 체결에도 큰 공헌을 했다.

아울러 조 명예회장은 한미재계협회장, 한일경제인협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제 경제외교 활성화를 견인했고 한국경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지난 1990년 2월 HICO 창원공장을 순시하던 당시의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지난 2005년 4월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국 재계 대표로 (왼쪽)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기자회견을 하던 당시의 모습. /효성그룹

“항상 긍정적이고 좋으신 분... 기업 대표 재계 원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정·재계 조문 행렬
상주 조현준 회장, 부인 이미경 씨 빈소 지켜

지난 29일 별세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가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지난 30일부터 시작된 조문은 이틀째 이어졌다.

빈소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원 명의로 된 조화가 놓였다. 상주인 조현준 효성 회장은 빈소에서 부인 이미경 씨와 함께 숙부와 사촌동생을 맞았다.

조양래 한국엔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은 아들 조현범 회장과 함께 지난 30일 장례식장을 찾았다. 조현범 회장은 “아버지(조양래 명예회장)가 막바지에 (고인을) 못 봐서 매우 슬퍼했고 아쉬워했다”며 “(고인이) 막바지에 정신적으로나 몸적으로나 많이 고생을 하셔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좋은 곳에 가서 편하게 쉬셨으면 좋겠다”고 추모의 말을 전했다.

빈소 전광판에 공개된 유족 명단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던 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도 모습을 드러냈



이재용(오른쪽) 삼성전자 회장과 어머니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조현범 한국엔컴퍼니그룹 회장(왼쪽)과 조양래 한국엔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한때 효성 경영에 참여했으나 부친·형제들과 마찰을 빚다 지분을 모두 처분하고 회사를 떠난 바 있다. 이후 2014년 형 조현준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하기도 했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가족들과의 추억 등을 묻는 취재진들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며 어두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모친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함께 빈소를 조문했다. 이 회장은 범효성가인 조양래 명예회장과 조현범 회장을 제외하고는 재계 오너 일가 중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았다. 그는 고인과의 관계 등에 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고인을 추모하는 이들의 발길은 이틀째(31일) 계속됐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과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은 31일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을 기렸다. 정

이사장은 조 명예회장에 대해 “항상 긍정적이고 좋으신 분”이라며 “기업을 대표하는 재계 원로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예전부터 굉장히 존경하던 분”이라며 “(상주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도 후배들을 잘 챙겨주시는 분들이라 꼭 인사드리려고 싶었다고”고 전했다.

이날 빈소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 등이 방문했다. 조 명예회장이 효성그룹 경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재계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한 만큼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례는 효성그룹장으로 4월 2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흥구 전 국무총리가 명예 장례위원장을,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장례위원장을 맡는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4월 2일 오전 8시 열린다. /차현정 기자

부 고

조석래(趙錫來) 효성그룹 명예회장께서
2024년 3월 29일 별세하셨기에 알려드립니다.

장례는 고인의 업적과 유지를 기리기 위해 회사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조화 및 부의는 정중히 사양하며
애도와 추모의 뜻은 마음으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빈 소 : 서울시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실1
- 발 인 : 2024년 4월 2일(화) 오전 7시
- 연락처 : 02-2227-7550
- 장 지 : 경기도 선영

효성그룹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30일 아버지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단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이 31일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빈소에 방문했다. /공동취재단